

# 바래기

申 榮 勳

지붕에 용마루, 합각마루, 추녀마루 끝에 鷓尾, 鸞頭, 龍頭, 鬼板, 鬼面, 望瓦 등이 놓인다는 사실은 지금 어느정도 알려져 있다. 조선조의 기와지붕에도 그런 장식의 쓰여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붕의 형태에 따라 저들의 쓰임은 달라진다. 맛배지붕에서 소용되지 않은 것이 팔작이나, 우진각 또는 모집에서 쓰이기도 한다. 조선조에서 이런 지붕에 장식용품으로 취두, 용머리, 잡상과 望瓦를 사용하고 많은 예는 아니지만 鯨頭와 獸頭를 쓴 집도 있다. 맛배지붕에서는 취두와 용머리만이 용마루와 합각마루 끝에 장식된다.

그러나 신라의 집터에서는 치미, 귀면, 귀판과 원통형 솟기와 등의 장식적인 것과 새처럼 생긴 것, 또는 乙字形 혹은 梯形의 기와들이 出土하고 있다. 조선조의 지붕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지붕에서는 채택되고 있었던 것이다. 단편적이거나 그 用例를 여러곳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부속품들의 출현은 우리를 몹시 당혹하게 만든다. 실제로 신라 때의 지붕구성법을 아직도 우리는 충분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석굴암의 발굴조사에서 원통형의 솟기와가 나왔다. 꼭 주먹쥔 손처럼 앞이 불거지게 생긴 둥근 이 기와는 그 끝에 연꽃을 장식하여 머리를 삼고 꼬리에 무엇인가에 연결될 축이 돌출되어 있었다. 무엇에 어떻게 썼던 기와인지를 알아내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感恩寺의 발굴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와가 나왔다는 보고가 있다. 연꽃이 새겨진 화면이 수직으로 서고 그로부터 원통형의 기와몸이 퍼져나

가 그 끝은 어깨처럼 좌우로 벌어져 있다. 마치 투구처럼 생긴 모양이라고 할만하다. 아니 검토할 때 일출에 쓰는 가리개와 비슷하다는 편이 더 적절한지도 모르겠다. 일출앞의 최창살 부분이 이 기와의 연꽃을 장식한 자리가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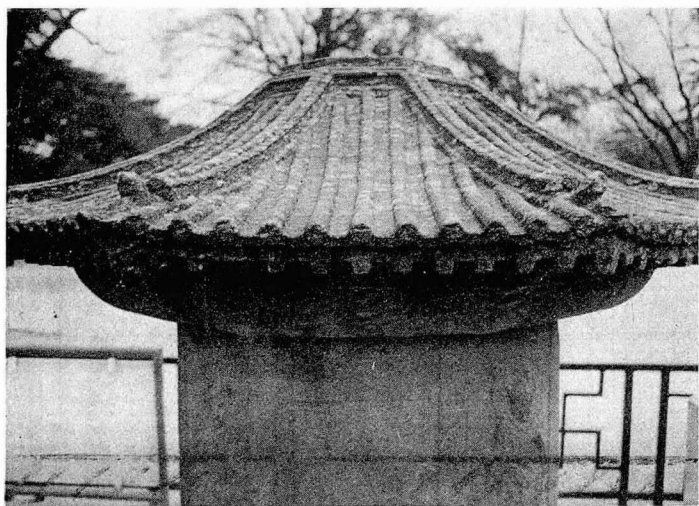
이 二例는 매우 당돌하여 쉽게 그 用度를 밝히려할 수 없었다. 막연하나마 마루집은 끝에 장식되던 기와라고만 알았고 鬼面과 연꽃시켜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사라호 태종의 광란으로 무수한 목조건물이 피해를 입어 당장 응급수리가 요구되던 시기가 있었다. 全南 和順의 雙峰寺三層殿(大雄殿)은 그 중에서도 피해가 막심하여 지붕이 돌아간 지경에 이르렀다. 부득이해 채수리 하여야만 앞으로의 보존이 보장될 형편이었다. 重建工事が 착수되었고 現場에 派遣되어 監董의 소임을 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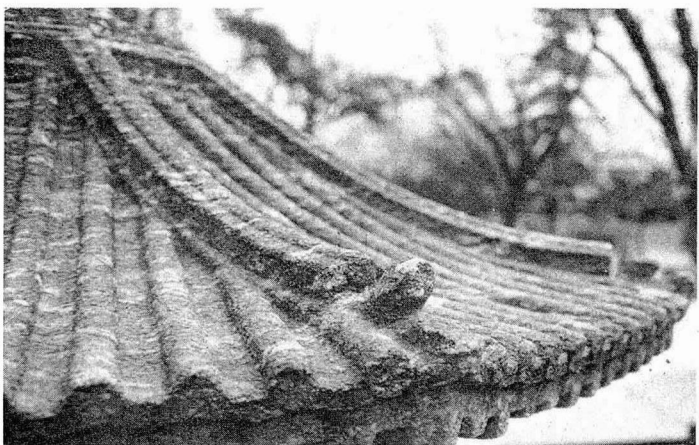
雙峰寺 경내에는 徹鑑國師의 浮屠가 있었다. 景文王 八년(八六八年)에 돌아간 철감국사를 위하여 九세기 후반에 세웠다고 보여지는 이 부도는 매우 木造的인 細微部分을 보이고 있어 이것을 一〇배쯤 확대하거나 하면 훌륭한 建築物이 되겠는데 그것은 매우 木造建築의 모양을 충실히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제 신라 때의 地上建築物을 볼 수 없는 형편으로는 이런 자료만이라도 더 없는 것이어서 現場常住의 기회를 이용하여 이 부도가 가진 신라 건축의 조사를 세밀히 할 수 있었다. 그 결과의 일부를 자그마한 글로 考古美術(徹鑑國師浮屠의 木造樣式)四권 一호 一九六三年에 소개한바 있었다.

이 때 지붕의 한 귀퉁이에 주목하였다. 바로 석굴암에서 본 그런 원통형 기와가 있었기 때문이다. 탑신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붕에도 평평히 사실적인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마루를 짚은 적새 위로 솟기와와 골 한줄이 생겼고 그 끝에 막새를 두어 막음하였는데 그 막새는 귀면 위로 덮여져 우뚝 자리잡고 있는 형상까지 그대로 나타나 있었다. 그 귀면에서 쳐마끝으로 약간 떨어진 자리에 원통형의 솟기와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



廉居和尚의 浮屠



廉居和尚浮屠지붕의 바레기 기와 모습(上·下)

다. 무늬까지를 나타내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분명히 연꽃을 새긴 석굴암의 그것과 同類이다. 잠은사의 그것과는 형태에서 다르다. 그렇다면 잠은사식의 원통형 기와는 석굴암식의 그것과는 異類임이 분명하여 같은 用途이면서 표현이 다른 두가지 종류가 있음을 확인하게된 셈이다. 이번엔 『신라의 기와』라는 책을 편집하면서 여러분이 쓴 글을 읽는 중에 雁鴨池에서 안팎재기 望瓦가 출토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金東賢씨의 글이었다. 곧 경주에 가서 雁鴨池를 전하하였다. 그 기와를 배전할 수 있었다. 꼭 활등처럼 굽어 연꽃무늬 놓은 부분과 평지가 같은 높이를

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다. 안팎사등을 보는 듯한 인상이어서 안팎재기는 假名을 부치게 되었다. 뒷쪽무늬를 누르면 앞머리가 발딱 들리게 된 이 기와는 석굴암식이나 잠은사식과는 또다른 형상이다. 안압지에서는 이외에도 원통형기와가 두세가지 더 나왔다. 그것들은 대략 잠은사식의 계통이었다. 佛國寺發掘 때도 이런 유형의 원통형기와가 나왔는데 대략 잠은사식이다. 그리고 보니 잠은사식의 원통형기와 用例가 많다. 많다는 뜻이 一般形이란 의미도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을 一般形이라고 한다면

석굴암, 안압지의 안뜰재기는 異形에 속한다고 해야겠고 쌍봉사 칠장구 사부도의 그것은 자연히 異形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景福宮엔 국보로 지정된 興法寺의 廉居和尚塔이 있다. 쌍봉사의 徹鑑國師浮屠와 마찬가지로 八角圓堂係의 石造物인데 여기에 도 木造建築樣式의 일부가 조각되어 있다. 지붕은 특히 더 정밀하여 우리가 문제삼고 있는 원통형기와가 마루끝에 조각되어 이탑은 신라 文聖王四년(八四四)에 세워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九세기 중반의 작품이어서 우리는 신라 원통형 기와의 또한 예를 얻는다.

廉居和尚의 지붕 원통형기와는 쌍봉사나 석굴암 식과는 다르다. 안압지의 안뜰재기 스타일과 많이 달랐다. 안압지식의 원통형기와를 이 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도 이런 기와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全慶雨씨 소장인 金銅佛龕의 지붕모서리에 突起한 장식에서 그런 원통형기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때의 어느기 까지는 이것이 지붕에 쓰였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 佛龕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통형기와 앞에 또하나의 突起가 있다는 점이다. 廉居和尚塔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雙峰寺의 부도에선 약간의 흔적만이 보인다. 그 부분이 모두 깨어졌기 때문이다.

雁鴨池出土의 기와중에 그것에 해당될 그럴듯한 것이 없을까를 찾아 보게 되었다. 마침내 그것이라고는 할 수 없더라도 아주 흡사하여 그것일 것이라고 주장하여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작품이 있었다. 암막새 두개를 연결시키고 그 연결부분에 상투처럼 생긴 돌기를 달아 놓은 것 귀와를 보았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붕구성에서 맞배지붕이 아닌 구조일때는 귀에 모가 생기게 마련이다. 정면에서 뾰족을타가는 처마의 곡선과 측면에서 오는 그것이 마주치는 곳에 예각을 이루는 뾰족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조선조에서는 이 부분을 귀절이 하여 추녀나 사례의 斷面에 平行되도록 하지만 고려나 신라에서는 처마선의 관성을 그대로 용납하여 날카로운 각을 이루며 만

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이 부분의 처리는 보통 크기의 암막새로는 정리되지 않는다. 암막새의 드림새는 굵고 길어져야 하며 기와는 삼각형으로 만들어져야 막음이 되기 때문이다. 두개의 암막새를 처음부터 각도를 주어 접합시켜 만들어 내면서 크기와 막음을 조절하는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이런 컷귀와의 예가 안압지에서 출토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佛國寺에서 石窟庵에서 그리고 경주에서 입수한 기와파편중에 그런 작품이 있었고 특출하게 암막새 드림새 두개를 접부친 파편도 鄭在鏤氏가 소장하고 있음이 상기되었다. 이런 用例는 적어도 一〇점이상이 되겠고 더러 보고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컷귀와의 일반형은 암막새 두개를 예각이 되도록 접합시키고 그 접합부분에 상당한 높이의 상투처럼 생긴 돌기는 突起를 달아 놓았다. 이런 기와가 제자리에 놓였을 때 突起는 원통형기와와 並列되어 佛龕이나 廉居和尚塔에서 볼 수 있는 형상을 이루게 된다.

원통형기와나 컷귀와의 상투처럼 생긴 돌기도 결국은 鴟尾나 鬼板, 鬼面과 같은 望瓦의 一種이다. 望瓦는 바래기라는 고유한 이름이 있다. 바래기 중에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 각기의 이름이 또 있게 마련이지만 원통형기와와 컷귀와의 원래의 이름, 새로운 이름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고 命名에 합의를 보지도 못하였다. 여기에서는 그런 用例를 소개하는 정도로 끝내려 한다.

한참 『신라의 기와』(『韓國建築史大系』V 『建築과 文樣』上卷)책이 인쇄 단계에 있어 도판이 모두 거기에 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그것들을 도시할 수 없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후에 그 책에 실린 圖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문화재 전문위원)